



| | | | | |
|-------------|-------|----------------------|-----------|----|
| 보도자료 | | 보도시점 | 자료배포일 | 매수 |
| | | '15년 3월 | '15.03.18 | 4 |
|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 | 정동현 팀장 / 박상길 사원 | | |
| 담당부서 | 운영지원팀 | TEL : 02-718-7900(代) | | |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제7대 이사장에 『박무웅 대표이사 취임』

시급한 법·제도·정책 개선 **조합 중심 해결 다짐**
“소각열에너지 생산 기업 전환” 모든 심혈 기울일 것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은 소각전문
 중간처분업체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출범하였으며,
 금년으로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7일 개최한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정기총회에서
 제7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주)국인산업
 박무웅 대표이사는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환경산업에 몸 바쳐 오면서 더 나은 산업여건을 만들어보고자 부단
 히 노력해 왔듯이 부족한 점은 많으나 발전적 사고로 이상적인 저탄소 녹색
 성장의 시대에 이바지 할 것임을 밝혔다.



▶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제7대 이사장
 박무웅 대표이사

박무웅 이사장은 한우화학(주) 상무이사, (주)태흥환경 전무이사를 지냈으며, 2001년 1월부터 (주)국인산업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5년 9월에는 (주)케이비텍의 겸임 대표이사로도 선임되었다.

또한, 2006년 3월부터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의 이사를 역임하고 금년 2월 27일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은 어떤 단체인가?**

전국의 폐기물 소각장 중 폐기물중간처분업을 갖고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소각업체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43개사가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업체들의 문제 발생 시 자칫 방치될 수 있는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전문 공제조합이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조합에 가입된 민간 소각업체들의 방치폐기물 발생은 전무한 실정으로 조합은 민간 소각업체들의 이상적인 발전과 더 나은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 업무에 집중해 나가고 있다.

▶ **폐기물이 자원이라는 인식이 정착되었는데 민간 소각업계는 어떤한가?**

민간 소각업계는 이미 2000년대 초 부터 단순히 산업폐기물을 태워 폐기물을 감량화 시킨다는 인식을 전환하기 시작했고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열을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을 지속해 온 결과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시설로의 역할을 병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3년 기준 연간 197만톤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하여 386만 Gcal의 에너지를 생산하였고 2,400억원의 에너지 수입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소각업체 근원적 수입원인 폐기물처리 매출의 40%에 달하는 소각열 매출을 올리고 있다.

더욱이 생산된 에너지는 스팀, 온수 및 전기로 인근 업체에 타 에너지 공급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에너지 공급원으로써 한 축을 담당하며 에너지 생산기업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살고 있다.

이렇듯 폐기물은 우리업계에 있어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료이며 자원으로 위치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인식 아래 이를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조합의 역할은?

10여년 이상 우리조합은 민간 소각시설을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이 아닌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원회수시설로의 인식 전환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음에도 아직도 일부 시각이 남아 있어 우리 조합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 “SRF제도 시행”,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법률” 등 예상치 못하게 출현한 정부 정책으로 생존다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불 때 업계를 지키고 안정된 환경에서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법·제도·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조합이 업계의 현실과 의지를 끊임없이 전달하는 정책기관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도맡아야 하고, 업계가 강력한 힘을 갖고 확고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비조합원사와 유관업계를 망라한 지원·협력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활용 육성정책에서 우리업계도 일조하는 기업군으로 인정받고, 가연성 폐기물 부적정 재활용을 적정 자원순환체계로 전환시키는 국가적 환경개선 사업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공제조합 이사장으로써 다짐은?

이사장 재임기간이 우리업계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여서 부담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믿고 맡겨준 업계의 기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로운 환경 관련 정책과 법안들이 우리 업계가 적응하기 힘든 패러다임 일지라도 업계의 중지를 모아 갈고 다듬어 자원순환 선도 산업의 입지를 굳히고 우리업계가 친환경적 에너지생산시설로 국가 환경과 기간 산업의 중추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